

대한 양계협회

소식

'97년도 본회 정기총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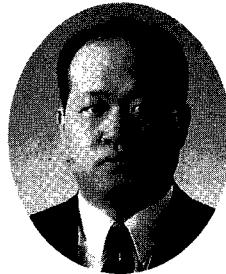


'97년도 본회 정기총회가 지난 24일 오후 2시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임원 및 대의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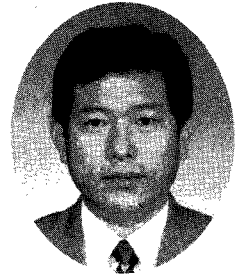
금번 정기총회에서는 △'96년도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 결산보고 △'97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며 양계 전반적인 현안문제에 대한 질의 응답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금년이 수입개방이 전면 이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대의원들의 관심

이 집중되었는데 국내 경기의 기복이 심한 탓에 대안마련에는 쉽게 접근하지 못했지만 생산량이 부족하여 가격이 폭등한다거나, 과잉으로 폭락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동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전에 홍보를 해나가는 것이 급선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한편 유공포상자에 대한 공로패 및 감사패가 수여되었다.

공로패



△ 차상협
(한일농원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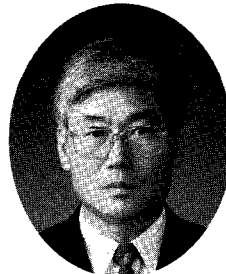
△ 박근식
(서곡농장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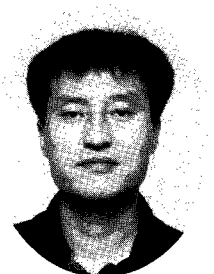
△ 김종선
(형제농장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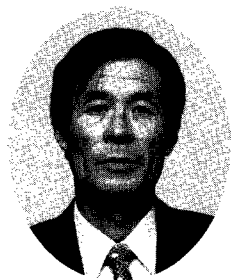
△ 이세현
(홍진농장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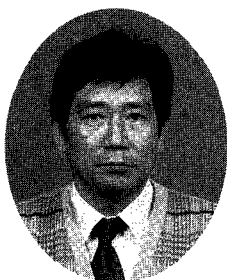
△ 유형재
(형제농장 대표)



△ 박경서
(신천농장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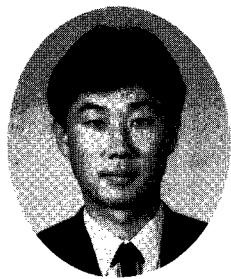


△ 임상철
(청운농장 대표)



△ 함경섭
(대산농장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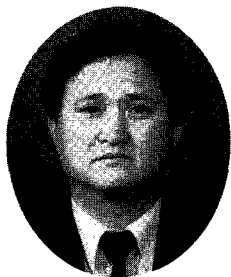
감사패



△ 김홍국
(한국위생계육산업협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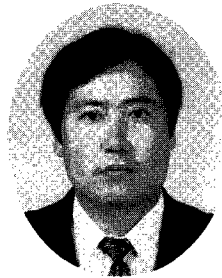
△ 이건표
(유일농원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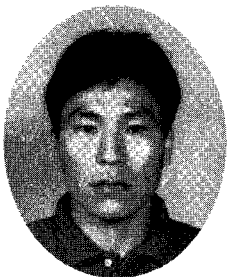
△ 김태수
(가평군 축산계장)



△ 박신환
(스파크인터내셔널 대표)



△ 고영
(삼지약품 대표)



△ 전병만
(안성계란총판 대표)

본회를 비롯한 14개 축산관련단체 김종호 의원에 감사패 전달



본회를 비롯한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돈협회 등 14개 축산관련단체는 지난 19일 축산인들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전면적용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힘쓴 신한국당 김종호 의원(사진 중앙)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이날 감사패는 축산관련협의회 전동용 회장(사진 오른쪽)과 본회 최준구 회장이 국회를 방문, 전달하였다.

김종호 의원은 지난 14대 국회 농림수산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신한국당 정책위원장으로 재임시 부터 배합사료부가세 영세율적용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여왔다.

또한 지난 15대 국회에서는 농어촌연구회 회장직을 맡으면서 지난해 10월 23일 고위당직자 회의에서 배합사료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당론으로 확정지어 재경원 등 관련부처와 협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양계분야 제도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회시

본회는 지난 1월 22일 개최된 축산관계관 회시 정부에 양계분야 제도개선 건의사항과 관련 지난 15일 이에대한 회시를 다음과 같이 받았다. (표1)

표1. 축산업관련 세계개선 요구내용

건의자	건의요지	검토의견
대한양계협회 최준구 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이 운영하는 농장의 경우에도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해야 함 • 양계산물의 가격연동제 및 유통 현대화 조치필요 (계란공판장 설치) • 소득세 비과세 대상 양계규모 확대조정 (1만수~2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법인 유형별(축협, 상법상의 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사료구매량 및 부가세 납부현황등 실태를 조사중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법인의 적용범위를 확대토록 할 계획임 • 소비자가격 및 산지가격은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강제적인 연동제 시행은 어려움이 있음, 다만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산지가격에 상응하는 소비자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생산자와 생산자단체·정부가 같이 노력해야함 • 유통시설 현대화를 위한 계란집하장, 육가공장 등 시설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다른 축종 또는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검토하여 필요시 소득세 비과세 대상 규모확대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겠음

축산단체장과 축산국장과의 간담회시 건의사항에 대한 회시

본회 최준구 회장 및 축산관련단체장들이 지난 1월 23일 축산국장과의 간담회시 건의한 사항에 대해 지난 11일 다음과 같이 건의사항에 대한 회시를 받았다. (표2)

표2 양계분야 제도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회시 내용

건의기관	건의내용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양계협회 양돈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자조금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농발법에 의해서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의무자조금 도입시 준조세의 성격을 갖고 있어 정부가 앞장서서 추진하기는 곤란함 ※ 미국의 경우 업계에서 시행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후 정부에 청원하여 도입됨 • 따라서 업계에서 의무 자조금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시행방안을 합의한후 청원할 경우 법적근거마련 검토
양계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의 사료부가세 영세를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영세를 적용대상으로 - 모든 축산농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서 - 상법등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음 • 우리부에서는 향후 법인까지도 영세를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각 시도를 통해 법인실태를 조사중에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를 적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축가·농발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 법인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를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시행규칙 별표 4에 의한 축산기자재 구입시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경우도 포함 (97.1.1부터) • 추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대상품목을 확대할 계획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연수생을 양계농장에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산업 연수생은 현행 제조업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농업분야에 대한 외국인력도입문제는 필요성과 수요등을 검토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비과세대상 양계규모확대조정,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부에서도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확대를 위하여 수차례 걸쳐 관련부처에 요구중임 • 관련법 개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축산 기자재의 관세율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기자재의 수입관세는 여타 농업분야 기자재와 동일하게 8%를 적용하고 있는바, 관세인하 여부는 타분야 및 국내기자재산업의 영향등을 검토하여 관계부처와 협의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계산물 가격의 연동제 및 유통의 현대화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가격 및 산지가격은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강제적인 연동제 시행은 어려움이 있음, 다만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산지가격에 상응하는 소비자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생산자, 생산자단체, 정부가 같이 노력해야 함 • 유통시설 현대화를 위한 계란집하장, 육가공장등 시설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축산업관련 세제개선 요구내용 제출

본회는 지난 18일 농림부 축정 제 51500-80(97.1.31)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본회의 세제개선 요구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 다 음 -

1. 축산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가. 현행

(1) 관련법규 : 농·축산·임·어업 등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대한 특례규정 및 동시행규칙

(2) 적용대상 : 동규정 제2조 제1항에 의거 개인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한함

나. 문제점

축산업을 합리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등 법인이 상당수 있는바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법률의 기본취지를 살릴수 없을 뿐 아니라 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개인)는 누구나 축산용기자재(시행규칙 제2조의2 별표4에 규정된 기자재)를 구입하면 영세율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수입을 하는 경우가 직접 수입하였거나 리스자금으로 수입하였을 시는 영세율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요망되고 있음

다. 개선방안(개정요구안)

관련법 조문 참조

라. 기대효과

축산용기자재에 대한 영세율적용범위를 확대하므로 시설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을 촉진시켜 국제경쟁력제고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것임

마. 관련법 조문(생략)

관련법 조문에서 제기된 내용중 축산용 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농가가 직접 수입 하였거나 리스자금으로 수입하였을시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은 현행 특례규정이나 시행규칙에도 명시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농가(법인 포함)가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축산용기자재를 구입하였을 때는 구입방법에 관계 없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의 사료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일반축산 농민에 대하여는 '97. 7. 1부터 배합사료의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을 받도록 조치되었으나 법인으로 운영하는 농장은 이에 대한 대상에서 제외된 바 국제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는 개인이나 법인이나 똑같은 실정이오니 법인(상법상)도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소득세 비과대상 양계규모 확대조정

가. 현행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및 동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1 기준에 의거 양계업의 경우 10,000수 이하 사육수를 부업농가로서 사업소득세 비과세되고 있음

나. 문제점

현 양계업계의 여건으로 보아 20,000수 - 30,000수 규모를 전업 규모라고 볼때 10,000수 이상 20,000수 이하 농가는 전업도 부업도 아닌 상태에서 소득세 부담으로 양계업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다. 개선방안(개정요구안)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 10,000수 이하를 20,000수 이하로 확대적용 요망(다음 관련법 조문 참조)

라. 기대효과

생산비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 농가 소득증대

마. 관련법조문

현행: 닭10,000마리

개정요구(안): 닭 20,000마리

3. 수입축산기자재의 관세율 인하

가. 현행

관세법 제7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 제84류에 의한 축산기자재(코드번호 8433, 8434, 8436외)의 관세율은 8%임

나. 문제점

양계분야는 경쟁력제고를 위한 자동화시설을 함에 있어 대부분의 농가가 수입 기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바 관세 8%를 부담하면 농가의 부담이 커 경쟁력제고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다. 개선방안(개정요구안)

2,000년도까지 경쟁력제고사업을 위하여 수입되는 축산기자재 전품목 및 그 부품에 대하여 잠정세율로 무세조치 요망

라. 기대효과

- 축산농가의 부담 경감
- 경쟁력제고사업의 조기완수
- 자동화시설을 통한 인력난 해소 및 생산성 향상

'97년도 제1차 이사회 개최 '96사업추진실적 및 사업계획(안) 심의



'97년도 제1차 이사회가 지난 12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96 제4차 이사회 회의록 요약보고, 협회 주요업무 추진보고, 감사보고에 이어 정기총회에 상정될 부의안건 심의가 있었다.

부의안건으로는 △96 사업실적 및 수지예산 집행 결산보고, △97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심의, △96유공포상 대상자 선정 등이 심도있게 검토되어 원안대로 정기총회에 상정키로 결정하였다.

채란농장 경영관리 전산화 프로그램 활용 세미나 개최

본회는 지난 19일 신구전문대학 전산실습실에서 채란농장을 대상으로 경영관리 전산화프



로그램 활용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최연호 신구전문대학 교수의 강의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50여명의 채란농장 대표 및 관리인들이 참석하여 깊은 관심을 보였는데 이날 강의된 프로그램은 최연호 교수팀이 농림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수수 및 산란능력 등의 생산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농장경영관리에 접근하였다는 평을 받았다.

'97한국양계박람회 추진협의회 개최 협의체 구성

오는 6월 24-27일까지 한국종합전시장(KOEX)에서 개최되는 '97한국양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97한국양계박람회 추진협의회가 지난 14일 팔레스호텔 카네이션룸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97한국양계박람회 추진 경과 보고, 박람회 개최계획중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는 후 주제, 주최, 조직 등 각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주제는 계획서 대로 '환경친화적 첨단양계산업시대를 연다'로 결정되었으며 주최는 전양계

인의 축제로 치러지기 위해 본회 및 한국계육 협회와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가 공동주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이번 대회를 이끌기 위한 협의체 및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그 명단(자문위원 및 운영위원은 생략)은 다음과 같다.

대회장 : 최준구(본회 회장)

고 문 : 오봉국(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본회 상임고문), 정시채(농림부장관), 김태식(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 김동태(농촌진흥청장), 송찬원(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이병석(한국사료협회장), 이상배, 이길재, 정일영(이상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3당간사)

운영위원장 : 오봉국(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부위원장 : 김홍국(한국계육협회장), 심상무(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장), 한성욱(전 한국가금학회장), 윤봉중(축산신문 대표), 박철우(축협중앙회 부회장)

분과위원장 - 행사분과위원장:황인옥(한국계육협회 상임고문), 섭외홍보분과위원장:임병규(서울사료 회장), 학술분과위원장:정선부(한국가금학회장), 전시분과위원장:박호일(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 부회장)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소비 감소로 난가하락

2월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구천석)가 지난 14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난가가 설 이후 계속해서 하락세에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적으로 계란이 체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난가가 하락하는 것은 부진한 계란소비에 요인을 찾고 계란값 회복을 위해 생산성이 낮은 노계를 과감히 도태시키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각 지역의 조합에서 독단적으로 고시를 할 경우 유통의 흐름을 방해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전국적으로 난가를 조절하는 고시위원들과의 상호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난가의 DC폭이 커지고 있는 원인중 하나가 대형화된 농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와 심각성을 더해주었다.

육계분과위원회 개최

계열주체 결제지연 심각

2월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최원악)가 지난 24일 개최되었다.

본회 정기총회가 끝난 후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일부 도계업체가 부도가 나는 등 육계가격이 호조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장기불황의 여파가 심화되고 있어 사양가들에게도 적잖은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계열주체들의 결제지연이 다시 연장되어 사양가들에게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어 결의서를 작성하는 등 해당업체에 강력 대응키로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일본 양계업자 본회 방문

국내 양계산업 현황 파악차 내한

일본 북해도 지방의 양계업자 12명이 지난



19일 본회를 방문, 양계산업 전반에 대한 현황을 듣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번에 방문한 시찰단은 중찰내농협단 양계사업부 요원들로 국내 양계단지 등 전반적인 양계산업을 둘러보았으며 본회를 방문하여 본회가 마련한 한국양계산업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한국의 계란 수급불균형 타개책, 축산정책자금 지원 현황, 소비패턴 등 궁금한 점들을 중심으로 질문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추백리진단액 가격 인상

1병(250수) 당 4,000원

본회는 추백리를 퇴치시키기 위해 지난 '85년 5월부터 본회로 창구를 일원화하여 추백리진단액을 일괄공급하고 있으나 추백리 제조, 판매업체인 녹십자수의약품(주)에서 원부재료비 및 인건비 등 제반 제조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이 있어 3월 1일부터 1병(250수분)에 3,000원 하던 추백리진단액 가격을 4,000원으로 인상한다고 알려와 본회에서는 3월 1일부터 인상 가격으로 추백리진단액을 공급중에 있다.

본회 광주전남지부

'97 정기총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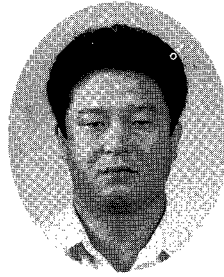
본회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윤석현)가 지난 26일 광주축산업협동조합 회의실에서 본회 최준구 회장을 비롯 임원 및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97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96년도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 결산보고 △'97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본회 김포채란분회

김선웅 분회장 유임

본회 김포채란분회(분회장 김선웅)가 지난 1월 총회를 갖고 다음과 같이 임원개선이 있었다.



◁김선웅 분회장

임원명단

회장 : 김선웅

부회장 : 장순배

총무 : 정이현

감사 : 이원섭, 최명묵